전남지역 모든 중·고교 올해부터 교복 공동구매

도교육청 "학교·교장 평가에 실적 반영"

올해부터 전남지역 모든 중·고교에서 교복 공동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은 22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모든 중·고에서 교복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복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와 교장 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복 공동구매는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질 좋은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방식이며, 구매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현재 전남도내 401개 중·고교 중 12%인 53개교에 불과한 교복 공동 구매 실적을 올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23일 전남지역 중·고교 전체 교장회의를 열어 각 학교의 교복 공동·일괄 구매 추진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또 '교복 물려주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토록 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양윤자 장학관은 "모든 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가 이뤄질 경우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은 물론 고가 교복 착용으로 인한 학생들간 위화감 조성 완화, 변형교복에 따른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의 해" 선포 민주화운동 관련 8개 기념 기관과 단체 대표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회의실에서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의 해'를 선포했다. 함세웅(가운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윤광장(맨 오른쪽)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 손을 잡고 선포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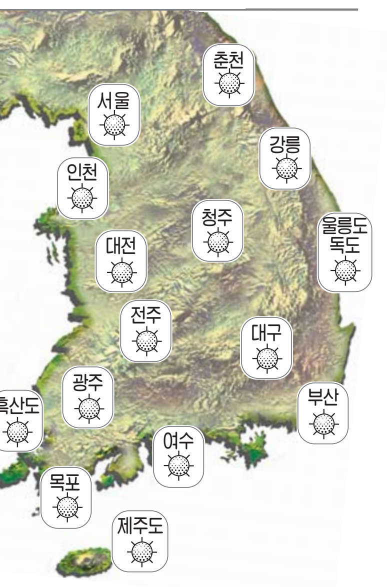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0분 / 해짐 18시 22분 / 달뜸 12시 10분 / 달짐 02시 23분

초 봄 날씨

해상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광 주	맑음	3/17℃
목 포	맑음	3/15℃
여 수	맑음	5/145℃
완 도	맑음	2/16℃
구 례	맑음	−1/16℃
해 남	맑음	−2/17℃
장 흥	맑음	−2/17℃
고 흥	맑음	0/16℃
순 천	맑음	2/17℃
영 광	맑음	1/15℃
진 도	맑음	1/17℃
전 주	맑음	1/15℃
남 원	맑음	1/14℃
흑산도	맑음	5/1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1.0~1.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1.0~1.5m

	밀물	썰물
목포	08:35 20:36	00:56 14:29
여수	03:49 16:00	10:12 22:3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3/1(월)
날 씨						
최저/최고	7/18	11/16	10/14	8/13	5/12	5/11

정광학원 '쇠심줄' 배짱

교사 채용비리 교장 재연임 승인

학교법인 정광학원이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인 교장의 재연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J교장의 재연임을 표결 끝에 승인했다.

2001년 9월 교장에 임용된 J교장은 2005년 8월과 2009년 8월 연임을 마친 이후 2009년 9월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법인의 행정착오로 누락된 후 최근 이사회에서 재연임이 의결됐다.

2011년 2월말 정년 퇴임하는 J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사실상 무자격으로 교장직을 수행해온 셈이어서 각종 행정적 행위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또한 이번 재연임 승인 과정에서 전남지역 조계종 주요 사찰 주지로 구성된 일부 이사들이 연임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표결끝에 6대3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모 이사가 현 사태에 대한 교장의 책임있는 사과 등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사회 운영 등에 반발해 사퇴하는 등 교내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한편 이 학원은 지난해 16명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6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 학교장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됐으나 법인측이 이를 거부해 학급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를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교수 강의평가 결과 고려대도 공개한다

동국대와 한양대, 상명대 등이 강의 평가자료를 공개한 데 이어 고려대가 22일부터 전임교수 1천600여명 등 교원 3천여명의 최근 3년치 강의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올려 학생들이 열람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공개 내용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2009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한 교과목을 학생들이 학기말 수강소감 설문에서 1~5점으로 매긴 평가점수의 평균점이다. 자료의 비교·분석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외대도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은 우수 교수들의 강의평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0 수능 영역별 성적

男 수리·女 언어 '우수'

서울대, 여학생이 40%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성적에서 남학생은 수리, 여학생은 언어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입시전문학원 청솔학원이 2010학년도 언어, 수리, 외국어, 언수외 과목의 영역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남녀 학생의 언어성적(100점 만점 환산점수)은 각각 63.7점과 70.2점으로 6.5점 차이가 났다.

수리성적은 남학생 45.8점, 여학생 44.2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약간 높았다.

외국어 성적은 여학생이 57.8점으로 남학생(55.2점)에 비해 다소 높아 언수외 전체 점수에서도 여학생이 172.2점으로 남학생 168.3점보다 4점가량 높았다. 남학생은 수리, 여학생은 언어성적이 좋다는 점은 과거 수능과 예비고사, 학력고사에서도 확인됐다.

청솔학원은 "남녀 학생의 언어와 수리성적은 1970년 예비고사는 53.1·54.3과 39.2·32.5점, 1982년 학력고사는 57.7·58.6점과 32.4·30.0점, 1995년 수능은 61.6·64.2점, 36.6·32.7점 등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진학자의 여학생 비율은 1969년 14.9%에서 1982년 21.1%, 1999년 31.6%, 2007년 40.5%로 상승했고, 2010학년도에는 39.8%를 기록해 41년 전과 비교할 때 24.9%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화창한 봄 날씨

광주·전남 오늘 낮 17도

화창한 봄 같은 날씨가 이번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25일부터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을 것"이라고 22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4~17도로 포근하겠다.

25~26일은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틀에 걸쳐 최소 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에너지절약형 차량 확대

광주시 2012년까지 50%

광주시는 에너지절약형 차량을 연차적으로 구입해 2012년까지 업무용 승용차량의 5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가 보유한 48대의 업무용 승용차량 가운데 에너지 절약형 차량은 모두 18대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업무용 승용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바꿀때 중·대형 차량을 줄이고, 소형 차량을 우선적으로 살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